

한국어도비  
시스템즈  
어도비 리프레쉬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술 소개  
인쇄사, 단순 인쇄 아닌  
마케팅회사로 전환 필요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어도비 맥스(Adobe MAX 2010)의 핵심을 포함한 어도비 리프레쉬(ADOBE REFRESH, 이하 어도비 리프레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콘텐츠 사업자는 물론 멀티스크린용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어도비 리프레쉬'에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멀티스크린 환경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어도비시스템즈의 플래시 기술 전문가인 글로벌 이밴절리스트들이 방한해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 우선 어도비시스템즈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밴절리스트인 리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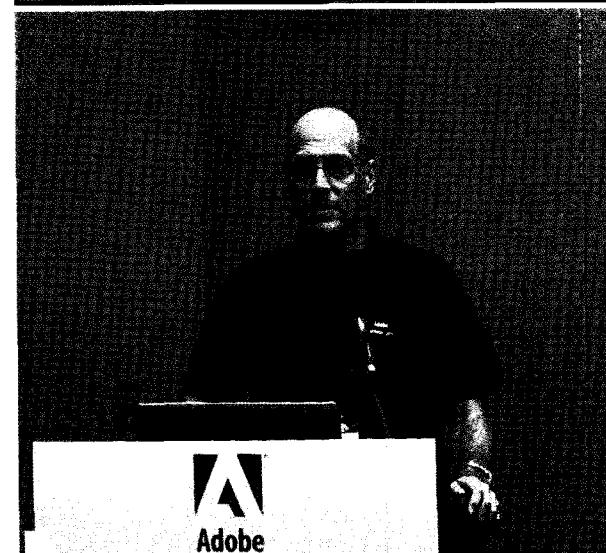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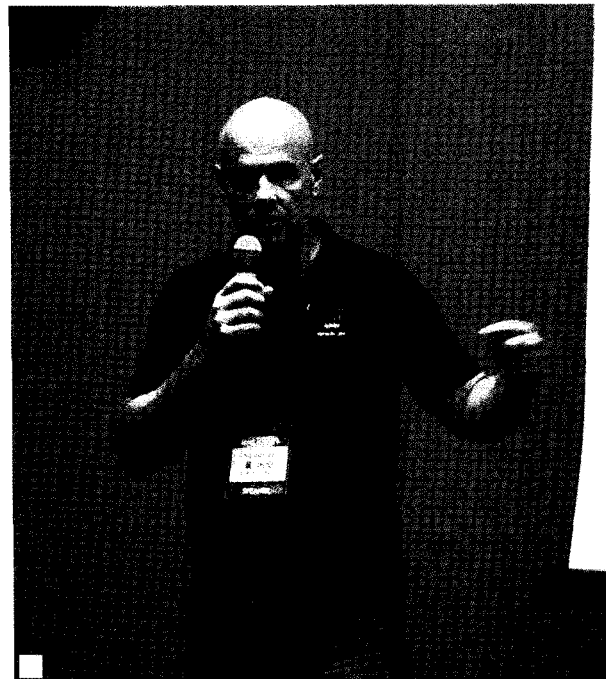
겔반이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면서 겪는 문제점과 최신 이슈들을 다룬 기조 연설로 막을 열었다. 리처드 겔반 씨는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등의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들조차도 이미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되는 내용들을 고객들과 함께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발한 것들이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폴 버넷 씨가 진행한 ‘멀티 디바이스 멀티 스크린’에 맞는 통합적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강연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툴과 언어를 이용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 번에 개발하고 이를 데스크톱,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그는 HTML5를 활용한 오픈웹(Open Web)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어도비 최신 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태블릿 PC에서 활용되는 어도비의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과 플래시 및 플래시 빌더의 미래를 포함해 향후 발표할 신기술 및 미공개 기술도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에 대해 발표한 마이클 스토더스씨는 앞으로 인쇄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20년 전의 인쇄는 노동집약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인쇄로 바뀌면서 거리에는 키크스 등 다양한 인쇄업체가 등장했다. 이들 업체의 등장으로 인쇄는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쇄는 익숙한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인쇄사가 단순히 인쇄를 해 주는 업체에서 벗어나 마케팅회사 디지털 회사로 발전해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미디어 대기업의 경우 인쇄뿐만 아니라 DM 등 개인화인쇄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제는 콘텐츠의 질이 인쇄사에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어도비시스템즈의 플래시 프로페셔널 제품 매니저이자 이벤 젤리스트인 리처드 겔반은 기조연설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멀티 스크린 환경이 다가오면서, 이제 몇 년 이내에 이들을 통한 정보 처리량이 PC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콘텐츠 개발자는 이러한 다양한 스크린과 플랫폼을 주된 타겟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어도비는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풍부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1 폴 버넷 씨가 진행한 ‘멀티 디바이스 멀티 스크린’에 맞는 통합적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강연

2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에 대해 발표한 마이클 스토더스씨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이사는 “최근 플래시를 통한 풍부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의 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도비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어도비 솔루션 전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멀티스크린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_ [www.adobe.com/kr](http://www.adobe.com/kr)

입남속 차장 [sang@print.or.kr](mailto:sang@print.or.kr)